

전환기 시대의 Julius Caesar의 역할

송 일 상*

—〈차 례〉—

- I. 서론
- II. 개인존재로서의 실상과 허상
- III. 공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그 역할
- IV. 결 론

I. 서론

Shakespeare는 *Julius Caesar*에서 공화정으로부터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전환기 시대의 로마의 운명적 인물인 Caesar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추이를 배경으로 해서 아이러니와 모호성을 자아내는 Brutus의 비극적 액션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 역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이저정신과 시이저신화”(Caesarism and Caesar-myth, Dowden 285)에 의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고귀한 인간정신을 유지하려는 Brutus의 비극은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볼 때 우리에게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전개되는 Brutus의 비극은 Caesar의 살해와 복수, 그리고 Brutus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들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비록 이 극의 비극적 주인공과 관련된 견해가 다양하면서도 Brutus가 주도적으로 이 극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만 Caesar의 죽음과 관련된 그의 액션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 극의 비극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관련해서 정리하면 Caesar와 Brutus의 비극은 극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어, Caesar를 “극 제목으로서의 주인공”(titular hero)으로 Brutus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임강사

를 “극적인 인물로서의 주인공”(dramatic hero)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Dorsch xxvii).

Julius Caesar란 인물은 이 극의 구조의 전개면에서 볼 때 겉으로는 Brutus를 중심으로한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뒤 무대위에서 사라지지만 그 후에도 로마세계라는 정치현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Caesar는 살아 생전에 위대한 절대통치자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후에도 “로마제국의 화신”(the incarnate principle of Empire)으로서 모든 인물들의 행동에 직간접으로 작용하고 있다(MacCullum 233). 그러므로 Caesar는 *Julius Caesar*라는 극 제목이 시사해 주고 있듯이 극의 진행을 축소하기 보다는 이 극의 “지배적인 인물”(the dominating figure)로서 극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행동속에서 Caesar의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Charney 67). 이와같은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Caesar의 특성은 로마공화정의 정치현실속에서 위대한 공인으로서의 절대군주의 역할과 개인으로서의 나약한 인간존재간의 대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Caesar의 이러한 개인과 공인으로서의 이중적 인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권력과 신성함을 고루 갖춘 숭고한 인물이면서 아울러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초조해하는 성마른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Knight 64). 그러나 Caesar의 공인으로서의 절대군주의 역할은 Brutus를 중심으로 한 공화파의 정치가들에 의해 로마사회의 “공익”(the general good)과 “자유민주공화제의 수호”라는 공화정의 가치에 역행하는 위협적 존재로 부각됨으로써 암살당하는 계기가 된다. 그가 권력 획득 과정에서 보여준 Pompey의 피에 대한 보상과 폭군적 행동 또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파의 명분으로 작용하여 Caesar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Caesar의 일련의 역할과 행동은 전환기 시대의 로마의 현실속에서 로마가 필요로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될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마의 정치현실속에서 필요한 지배자로서 작용하고 있는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공인의 이미지와 그런 이미지를 공적으로 역할해 나가는 나약한 인간존재로서의 Caesar 개인의 실상과 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인존재로서의 실상과 허상

개인 존재로서의 Caesar가 보여주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절대군주적인 거만한 태도는 자신을 무소불위의 절대통치자의 이미지로 나타나 로마국가와 동일시하고 나아가 초자연현상의 이미지로 확대되고 결국에가서는 확고부동한 북극성의 이미지로 발전하여 신격화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하나의 개인존재로서 인간 Caesar의 본래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혀 초인간적이거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극의 시작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Caesar의 개선행렬의 분위기는 강력한 절대군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Caesar라는 한 인간의 육체적 허약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치 Colossus의 거상과 같이 이 세상을 좁은 듯이 우뚝 걸쳐 서있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 (petty men)은 그의 거대한 다리사이(under his huge legs)를 걸어다니면서, 자신들의 불명예를 감출 묘지(graves)나 찾고 다니는 광경처럼(I.ii.133-36), Caesar는 절대군주의 통치자의 이미지로 등장해서 화려한 행렬과 군중들의 환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웅장하고 열광적인 공인으로서의 등장의 분위기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그의 순간적인 퇴장하는 장면을 고려해보면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Caesar는 말한마디로 세상을 변모시킬 만큼 권위와 영광이 절정에 놓여 있지만 가마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자세로 그가 말하는 첫마디는 꺾속말로 아내를 부르는 극히 사사로운 행동이다(Spencer 21-22참조).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에 모든 행렬과 행동은 중지되고 숨을 죽인다. 그러나 Caesar가 하는 말은 또다시 개인적인 이야기로서 Antony에게 경주 도중에 아내를 건드려서 불임의 저주를 제거해 달라는 미신적인 주문이다(I.ii. 1-10). 따라서 이러한 Caesar의 태도는 거만한 독재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지만 나약한 개인의 이미지를 과장하는 Caesar의 이중적 자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Charney 70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Caesar의 영웅적인 절대군주의 이미지가 과대포장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Cassius는 이와 같은 Caesar의 이미지를 나약함과 결점을 들어 앞서 Caesae 라는 이

름을 평가절하했듯이 극히 개인적인 인물로 평가한다. 티베르강에서 Caesar와의 수영시험에서 보여준 겁많은 나약자 (I.ii.112-18), 스페인 전투에서 열병에 걸렸던 병자 (I.ii.127-28), 간질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 (I.ii.254-58), 그리고 왼쪽 귀가 먼 귀머거리 (I.ii.208-10) 라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공인으로서의 절대군주가 아닌 늙고 허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실제로 개인으로서의 Caesar에 대해서 H.B. Charlton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호언장담하는 망령으로 노쇠하고 헛된 망상에 사로 잡혀있는 한쪽 귀가 멀고 소심하며 미신에 빠져 있는 존재로서 Shakespeare가 Plutarch 원전의 인물을 왜곡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74-5).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갖고 있는 Caesar의 입장에서는 전환기 로마의 정치현실 상황하에서 절대권력자라는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지닌 육체적,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절대군주로서의 가면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개인 존재를 무시한 공인으로서의 자만심과 과장된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절대군주의 역할에 대한 Caesar의 이러한 노력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Majorie B. Garber는 앞서 예언자의 예언을 몽상가(dreamer)로 치부해 버리고 즉시 퇴장하는 행위 또한 Caesar의 약점을 위장하는 극적 장치인 동시에 자아인식이 결여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51).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아내에게 남편을 'Caesar'라는 3인칭으로 기억시켜 개인적인 부부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끌어 올리는 행위 역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아내를 자기 기분내키는대로 음식을 받아주거나 무시해 버리는 존재인 "노리개감"(plaything)으로 생각하는 Caesar의 인간적 한계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arrison 85참조). 그러므로 한 개인으로서 인간적 진실을 무시해 버리고 공인으로서의 절대군주의 역할만을 고수하려는 Caesar의 과장되고 신격화된 이미지는 공화제의 회복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공화파에게 대의명분의 구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앞서 절대권력의 지배자로서 강조했던

“항상 나는 시이저다”(For always I am Caesar, I.ii. 211) 라는 대사의 의미도 사실은 자신의 소외감과 불안을 의식적으로 감추려는 행위이며, “항상”(always)이란 말에도 위험과 공허한 삶과 닳쳐올 재앙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Traversi 7).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Caesar의 행위 역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절대권력의 주체인 신적인 존재로 과장하는 태도이다. 그는 원로원으로 모시러 온 Decius Brutus에게 등청거부에 대한 이유를 “못간다는 건 거짓말이고, 갈수 없다는 건 더더욱 거짓말”(Cannot, is false:/ And that I dare not, falsier, II.ii. 60-64)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 이유는 나의 의지에 있소. 가지않는다는 의지에, 그것이면 원로원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오”(The cause is in my will: I will not come:/That is enough to satisfy the Senate, II.ii.71-72)라고 밝힘으로써 원로원을 무시해 버린다. 따라서 Caesar의 말한마디에 원로원이 만족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화제의 정치권력이 한 개인의 권력에 좌우되는 제국주의적 정치체제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즉, 이러한 Caesar의 기본입장은 국가의 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념에 의한 자만심의 발로이다. 이러한 Caesar의 극한 태도는 Cimber의 죄를 사면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Cimber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Cimber의 추방령에 대한 탄원에 대해서도 일축해 버린다. 절대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결정은 번복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며 원칙임을 강조하는 독재자의 태도이다. 따라서 “시이저는 나쁘게 하지도 않지만 이유없이 좋게도 하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Know, Caesar doth not wrong, nor without Cause/ Will he be satisfied, III.i.47-48)라고 말함으로써, Caesar가 내린 결정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빛을 발하지만 유독 부동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북극성”(the northern star, III.I. 60)처럼 확고부동한 것이며 인간적 차원을 초월한 신이 판단한 결과로 과장하고 있다. 이처럼 Caesar는 의사당에서 로마의 절대통치자로, 로마정신의 화신으로, 신격화된 이미지로 과신하고 행세하면서

“시이저신화”(Caesar-myth)의 위대함 속으로 자신을 몰고가고 있다. 즉,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Caesar”라 불리우는 전설상의 힘만을 인식하는 것으로 Caesar 자신의 이미지에 동료들을 복종시키려는 나약한 인간 Caesar의 과장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Caesar의 신적인 존재로 탈인간화하는 자만심은 음모자들의 눈에는 폭군의 이미지로 비치게 되었고 그들의 로마공화정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살해계획에 대해 일종의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화정의 가치에 역행하는 Caesar의 폭군적 특성은 이미 Pompey를 제거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Caesar의 권력장악 그 자체가 공화제의 정치체제내에서 불법적임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공화제란 권력의 집중이 분산되어 있는 정치체제인데 Caesar는 이를 무시하고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Pompey를 무력으로 제거하고 그의 자손들마저 피로 물들여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개선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Caesar가 권력을 Pompey의 피의 댓가로 획득했듯이 Caesar 또한 Pompey의 흘린 피의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 획득한 권력은 피의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역사의 자명한 진리인 것처럼, 공화파 정치가들은 피를 부르는 Caesar 암살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aesar의 죽음도 Pompey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암살계획 장소로 “폼페이현관”(Pompey's porch, I.iii.147)과 “폼페이의 극장”(Pompey's theatre, I.iii.152)으로 선택되고 Caesar가 살해당한 후에 쓰러진 곳도 바로 Pompey의 동상 밑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에 대해 Matthew N. Proser는 Shakespeare가 의도적으로 Caesar와 Pompey의 죽음을 연계하면서 피는 피를 부른다는 역사적 진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Pompey의 죽음과 Caesar의 죽음을 연계시킴으로써 Shakespeare는 “역사의 순환논리”(history's cyclical quality)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12). 부연해서 설명하면 Caesar의 피는 피를 흘리게 한 암살자들에게도 적용되어 결국 Caesar의 피의 댓가를 받게 되는 복수, 역복수의 운명의 순환과정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Caesar가 절대권력을 독점한 것은 단순히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Pompey를 제거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기존 로마의 정치구조와 질서,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봉사과 책무라는 로마공화정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공화정의 몰락을 예견해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로마의 정치현실이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지만 엄연히 권력의 중심이 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공화정의 정치체제이다. 그러므로 Cassius를 중심으로한 음모자들은 Caesar의 폭군적인 자만행위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군주의 역할을 살해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들은 살해의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하겠다 (Keeton 357).

III. 공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그 역할

Julius Caesar는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이행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로마제국주의의 정신의 화신으로서 공익과 자유공화정의 실현이라는 로마공화정의 가치에 역행하는 절대군주적인 지배자의 이미지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로마의 정치현실도 Caesar를 통해 강력한 절대군주의 독재권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공화정의 정신이 상실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개선하는 Caesar에게 로마시민들은 절대권력의 가시적 상징인 왕관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로마사회는 엄연히 공화제의 정치체제와 체제가 상존해 있으므로해서 아직 제국주의를 전면 수용하기에는 합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로마가 취한 현실적 대안은 절대군주와 동일시되는 권력의 상징인 Caesar라는 인물을 통한 로마사회의 안정적 통치 행위이다. 따라서 절대군주라는 공인으로서의 역할이 로마의 정치현실에서 필요하게 됨으로써 공익과 자유민주 공화정의 수호라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Brutus를 중심으로한 공화파들이 Caesar 제거의 대의명분이 되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aesar의 강력한 공인으로서의 이미지는 처음 등장하는 1막 2장에

서 명령조의 단호하면서도 직설적인 어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등장하면서 그가 말하는 첫마디는 “Calphurnia”이며, 이에 대한 반응도 “조용히, 시이저 각하의 말씀이다”(Please, ho! Caesar speaks, I.ii.1)라고 한다. 이어서 예언자가 “Caesar”라고 부르자, Casca는 “다들 소리내지 말라. 모두 조용히해”(Bid every noise be still. Peace, yet again! I.ii.14)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대사는 Caesar의 말에 모두를 집중하게 하는 위엄과 권위가 깃들어 있다. 즉, 절대군주의 명령에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있다. Caesar 자신도 스스로 절대통치자와 같이 “말하라, 시이저가 그대의 말을 듣겠다”(Speak, Caesar is turn’d to hear, I.ii.17)라고 명령하고, “3월 15일을 경계하십시오”(Beware the ides of March, I.ii.18)라는 예언자의 충고에 대해서도 “그는 잠꼬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버려두고 가자”(He is a dreamer. Let us leave him. Pass. I.ii.24)라고 일축한다. 그리고 신성한 마차경주를 하는 사람이 건드려 주면 Calphurnia의 불임의 저주를 면할 수 있다는 Caesar의 미신을 과신하는 명령에 대해서, Antony는 “명심하겠습니다. 각하의 말씀 한마디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I shall remember:/When Caesar says, “Do this”, it is perform’d, I.ii.9-10)라고 답변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는 Caesar의 특성은 공인으로서 Caesar의 거만한 태도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와같이 거만한 공인으로서의 Caesar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아내 “Calphurnia”를 부르고 Antony에게 그녀의 불임을 미신으로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태도는 독재자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에서 볼 때, Caesar가 로마건국의 시조인 Romulus와 Remus가 늑대의 젖으로 성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Lupercalia 축제에 등장해서 아내의 불임을 걱정하는 것은 Romulus가 로마왕조를 개국한 것처럼, Caesar 자신도 왕조건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이러한 소망이 아내의 불임으로 허사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Romulus가 쌍둥이 형인 Remus를 살해한 것과 Caesar가 Pompey를 제거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행위는 서로 일맥상통한 점을

시사해 주고있는 것이다(Miola 80참조).

로마의 현실세계에서 절대군주로서의 Caesar의 이미지는 1막 3장의 "폭풍우 장면"(Storm scene)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Caesar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즉, Caesar의 죽음을 우주차원의 무질서와 관련지음으로써 Caesar의 운명은 곧, 로마의 국가적 운명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alphurnia는 이러한 우주의 무질서를 "하늘이 제스스로 화염을 발하여 왕자의 죽음을 알리는 것"(the heavens themselves blaze forth the death of princes. II.ii.31)으로 파악함으로써 Caesar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암살자들의 음모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Caesar의 암살과 폭풍의 이미지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d the complexion of the element
In favour's like the work we have in hand,
Most bloody, fiery, and most terrible. (I.iii.128-30)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하늘이 살벌하고 시뻘겋고 몹시 소름끼치는 자연의 기현상은 Caesar의 독재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다기 보다는 Caesar의 살해계획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기때문에 Caesar의 죽음에 대한 예고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Shakespeare는 Caesar 살해가 구체화되어 물고 올 공화정과 제국주의의 정치체제간의 갈등과 충돌을 먼저 외부적인 자연현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결국에 가서는 Caesar의 죽음을 초래한다고 볼 때, 폭풍우 장면의 기이한 자연현상은 Caesar를 로마의 절대군주로서의 위치로 동일시 함은 물론 Caesar로 하여금 절대통치자로서의 권력을 공고히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신을 자연현상과 동일시하는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로마 세계와 동일시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로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는 앞서 자신을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부를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 Caesar와 절대권력의 통치자로서의 Caesar를 통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일시하는 태도는

Brutus를 중심으로한 공화파의 로마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게하는 자만의 한 형태로서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난다. Caesar는 Cassius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해버릴 때도 “내가 누구를 두려운다는 뜻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시이저이니까”(I rather tell thee what is to be fear'd/ Than what I fear; for always I am Caesar, I.ii.208-9)라고 말하고 있듯이 “Caesar”라는 3인칭을 사용한다. “Caesar”라는 이름이 이미 절대권력의 실체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일종의 부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H. Granville-Barker는 Caesar라는 이름이 7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Caesar”라는 이름은 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으므로해서 Caesar라는 이름 자체가 그 만큼 지배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Caesar”라는 이름의 사용은 역으로 Cassius에게는 이미 Caesar 살해의 명분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383참조). 실제로 Cassius는 Caesar라는 이름을 Brutus라는 이름과 비교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Brutus and Caesar: what should be in that “Caesar”?
 Why should that name be sounded more than yours?
 Write them together, yours is as fair a name:
 Sound them, it doth become the mouth as well:
 Weigh them, it is as heavy; conjure with ‘em,
 “Brutus” will start a spirit as soon as “Caesar”.

(I.ii.140-4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Cassius는 Caesar라는 이름을 Brutus라는 이름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써보고 불러보고 무게를 달고 그리고 주문을 외워 신을 불러 보아도 조금도 다를 바 없으므로 “Caesar”라는 이름이 자주 불러지는데 대해 부정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Caesar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한 인간이자 개인으로 평가절하하는 Cassius의 책략에 의한 분석으로 Caesar 살해를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Caesar와 로마를 동일시하는 현상은 Antony가 Caesar의 죽음을 로마의 운명과 연계시키는 장면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는데, 그는 Caesar가 Pompey의 동상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나와 여러 시민들은 물론이고 온 로마시민 전체가 쓰러진 것이오”(Then I, and you, and all of us fall down. III.ii.193)라고 확대 해석한다.

이러한 Caesar의 이미지와 그 역할은 로마사회에 대한 Caesar 본인의 현실인식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Caesar는 공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의 주체로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Calphurnia의 꿈에 대한 Decius Brutus의 왜곡된 해석을 수용하는 그의 태도에서 적절하게 나타난다.

Your statue sputing blood in many pipes,
In which so many smiling Romans bath'd,
Signifies that from you great Rome shall suck
Reviving blood, and that great men shall press
For tinctures, stains, relics, and cognizance. (II.ii.85-89)

Decius Brutus는 Calphurnia의 꿈은 “길몽이요 행운”(a vision fair and fortunate, II.ii.84)이기 때문에 Caesar의 동상이 뿜어대는 피속에서 로마인들이 웃으며 손을 씻는 것은 위대한 로마가 Caesar로부터 부활의 피를 얻어가는 행위이며 또한 기인들조차 그 피로 기념물이나 유품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왜곡된 해몽을 수용함으로써 Caesar는 자신의 피로 로마를 재생, 번영시킬 순교자로 자신의 역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로마현실에서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통치자의 역할이었다. 다시말해서 전환기의 로마가 Caesar에게 기대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강력한 불멸의 존재로서 초인적 행동을 보여주는 절대군주의 역할이다(MacCullum 231). 따라서 Caesar는 이러한 로마시민들의 기대를 사전에 의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Caesar를 위협하는 것들도 정면으로는 쳐다보지도 못하며 Caesar의 얼굴을 보는 즉시 모두들 사라져 버린다고 과신하므로써 이미 Caesar에게는 자신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군주의 위치로 승격한 Caesar는 죽음을 암시하는 Calphurnia의 불길한 꿈에도 불구하고 “시이저는 등칭할 것이다”(Caesar shall forth. II.ii.10)라고 결

심했고, 또한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꺼내보니 심장이 없기 때문에 등청을 만류하는 하인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들조차 비겁한 자를 부끄럽게하는 행위로 무시해 버렸다. 따라서 무서워서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심장없는 짐승”(a beast without a heart, II.ii.42)과 같은 신세가 되기 때문에 등청을 고집했던 것이다.

No, Caesar shall not. Danger knows full well
That Caesar is more dangerous than he.
We are two lions litter'd in one day,
And I the elder and more terrible,
And Caesar shall go forth. (II.ii.44-48)

이제 Caesar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존재는 전무한 절대권력의 지배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Caesar는 Cassius가 Publius Cimber의 사면을 청원하자 단호하게 거부하는 대목에 와서는 “신격화한 이미지”(demi-god)의 위치로 상승하여 확고부동한 “북극성”(the northern star)의 이미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원을 하여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Caesar는 확고부동함이 북극성과 같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But I am constant as the northern star,
Of whose true-fix'd and resting quality
There is no fellow in the firmament.
The skies are painted with unnumber'd sparks,
They are all fire, and every one doth shine;
But there's but one in all doth hold his place.
So in the world: 'tis furnish'd well with men,
And men are flesh and blood, and apprehensive;
Yet in the number I do know but one
That unassailable holds on his rank,
Unshak'd of motion; and that I am he. (III.i.60-70)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빛을 발하지만 오직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북극성 하나뿐이다. 인간세계에서도 피와 살 그리고 이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확고부동한 사람은 오직 "Caesar"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을 스스로 초인적인 이미지로 신격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Caesar는 자신을 절대적인 이미지로 동일시하면서 개인에서 절대군주로 그리고 탈인간화된 신의 이미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James C. Bul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With the hyperbole that has characterized all conqueror heroes, Caesar ingenuously identifies in himself an absolute integrity of self and self-image. Like Talbot, he is what he says he is--a godlike hero of mythic proportions. The language defines him as such; and public acclaim, heard offstage each time he refuses the crown, affirms it(52).

결국 Caesar가 권력획득 과정에서 보여준 절대권력에의 의지와 자만으로 과장된 그의 이미지와 역할과 행동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Caesar의 죽음으로써 한 개인으로서의 Caesar는 사라졌지만 공인으로서의 절대권력을 상징하는 Caesar의 역할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공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그 역할은 Caesar가 살해당한 뒤에도 시민들에 의해 Brutus에게로 이어지고 또 다시 유령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Antony와 Octavius Caesar에게로 계승되고 있는데, 먼저 공인으로서의 Caesar와 로마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실 로마시민의 역할은 단순한 극의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Caesar와 Brutus의 운명을 결정짓는 능동적 힘의 주체로서 작용한다. 로마시민들은 초기 로마공화정의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Coriolanus*에 나오는 로마시민과 같이 갈등의 주체가 아닌 엄연한 정치주체이기 때문에 정치지도자에 따라 군중의 힘은 발휘되게 된다. 실제로 이 극에서의 로마시민들은 이미 공화제의 가치규범을 상실한 상태로 극의 시작 장면에서 동료인 Pompey를 불법으로 제거하고 개선하는 Caesar를 축하했다. 비록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말하자면 "Pompey의 피로 개선하는 자에게 꽃을 뿌리는"(1.i.50) 로마시민들의 행위가 불충하고 로마와 가족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라는 로마의 미덕을 깨뜨리고 부도덕을 강요함으로써 왕위에 오르려는

Caesar의 야심에 대한 호민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Miola 79) 극의 시작부터 시민들에게는 Caesar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Caesar의 죽음을 둘러싼 시민들에 대한 Brutus의 연설에서도 Caesar의 이미지는 작용한다. 시민들은 Brutus에게 Caesar의 공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브루터스를 시이저로 추대하자 브루터스가 씨이저가 되면 씨이저의 좋은 점만이 빛나게 될 것이다"(Let him be Caesar, Caesar's better parts/shall be crown'd in Brutus, III.ii.52-53)라고 요청하고 있듯이 Caesar가 살해당한 후에도 여전히 로마사회는 Caesar라는 존재가 필요한 현실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중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aesar라는 개인 존재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Caesar의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Charney 69).

시민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 "Caesar"가 아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절대권력의 상징인 "Caesar"라는 인물이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화제의 정치질서에서 시민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감안한다면, 공화파들의 Caesar 살해에 대한 정치적인 대의명분은 부정되고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사실 Brutus는 로마의 역사적 현실의 실체를 표면화하는 이러한 로마시민들의 시대적 요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Brutus는 Caesar가 로마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폭군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제의 수호라는 가치를 명분으로 Caesar 살해에 동참했다. 그러나 Caesar는 로마세계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이며 로마시민들의 의식속에 절대군주의 이미지로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Caesar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Caesar의 공적인 역할을 시민들은 Brutus에게서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고귀한 도덕성과 명예를 갖춘 이상주의 정치가인 Brutus는 아이러니컬하게도 Caesar라는 절대권력의 통치자로서의 역할 수행의 책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Caesar는 살해당한 후에도 로마의 현실정치를 대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Brutus가 의도했던 공화정의 복원이라는 가치실현은 Caesar라는 절대군주 한 사람만을 제거

했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버렸다. 왜냐하면 Caesar로 대변되는 시대적 정신은 Caesar라는 한 개인의 야심이나 권력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환기의 로마의 현실 정치구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aesar로 대변되는 제국주의 정신인 “시이저정신”과 “시이저신화”에 대항한 것이야 말로 바로 자유공화정의 수호라는 공화주의자들의 명분이라고 Brutus가 강조하고 있듯이 그들은 Caesar의 육신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시이저의 정신”(the spirit of Caesar, II.i.167)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Brutus를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자들은 Caesar의 정신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도 사실이다. Caesar만 제거하면 현재의 공화정의 위기는 해소되고 과거처럼 공화정의 로마가 유지되리라 확신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로마의 현실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인간으로서의 Caesar라는 존재는 제거됐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현실사회의 풍토속에서 자유롭고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로마의 영원한 상징으로서 로마의 현실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Antony가 바친 왕관을 세번씩이나 거절하자 시민들의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는 사실과, 살해 당일에 의사당에서 제왕이 될 운명적인 순간에 사실상 절대권력을 쥐고 있던 Caesar가 살해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Caesar는 전환기의 로마의 정치현실을 대변하는 영원한 희생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aesar의 절대적인 힘과 정신은 “유령”(spirit)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Brutus에게 나타난다. Caesar의 유령은 사실상 암살자들의 향후의 운명과 로마세계의 역사적 힘의 역할로 작용하며 또한 로마역사가 제국으로 이행해 가는 귀로에서 제국의 힘을 표면화하는 이미지를 반영한다. Brutus도 이러한 유령의 의미를 살아있는 Caesar의 정신으로 인정하고 있다.

O Julius Caesar, thou art might yet!
 Thy spirit walks abroad, and turns our swords
 In our own proper entrails. (V.iii.94-96)

상상의 세계이지만 Caesar의 혼백이 살아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우

리의 단점으로 우리 자신의 창자를 찌르게 만든다는 Brutus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Caesar는 살해당했지만 Caesar의 정신이 로마국가를 움직이면서 공화제의 파멸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ne Barton도 Caesar의 불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n the event, the spirit of Caesar is precisely the thing they do not kill. They merely release it from the shackles of its human form and failings. No longer deaf, arrogant, epileptic, or subject to error, this spirit walks abroad as a thing against which, now, there is no defense. At Philippi, it turns the swords of the conspirators into their own proper entrails. It raises up a successor in the form of Octavius, who will annihilate the republic in Rome(88).

Cassius가 평가절하했던 “Caesar”라는 이름자체도 실제로는 Caesar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나타나 Antony와 Octavius에게로 이어져 실질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이어진다(Charney 75). 먼저 Caesar의 정신은 Antony에게서 나타난다. Antony는 더이상 과거의 이미지 즉, “경주차림의 선수요”(I.ii.sd.), “놀이좋아하고”(I.ii.28), “날렵한 기질에”(I.ii.89), “천성이 스포츠파이요, 방탕하고 친구와 어울리기 좋아하면서”(To sports, to wildness and much company, II.i.189) “유혹으로 밤을 지새우느”(II.ii.116) 방탕아가 아니다. Caesar가 죽은 후로 그의 성격과 행동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Antony는 Caesar의 시체를 들고 군중들에게 Caesar의 정신을 불어넣으므로써 피에는 피로 복수하는 냉혹함을 보인다. 그러므로 Caesar는 Antony에 의해서 몰락한 자만과 폭군의 이미지에서 성스런 순교자로 변모한다. 따라서 Brutus를 중심으로한 공화파들이 주창한 자유민주공화제의 로마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은 시민들이 공화제의 가치규범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Caesar가 죽은 후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Octavius Caesar의 강력한 힘이 되어 나타난다. Antony에게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살해당한 절대군주인 Julius Caesar

를 연상하는 말과 행동을 취한다(V.i.16-20). 자신을 “또다른 시이저”(another Caesar, V.i.54)라고 스스로 밝히고, Brutus와 Antony에게서도 “Caesar”라고 인정받는다(V.i.24,56). 이러한 “Caesar”라는 이름의 반복의 의미는 공인으로서의 Caesar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이미지와 역할의 비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Octavius와 Caesar가 강력한 연대감으로 연결되어 계승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Caesar의 절대권력과 야심 그리고 자만심은 Octavius에게로 이어져 강력한 로마제국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화제의 가치규범인 자유민주공화정에 대한 공화파의 명분은 약화되고 파괴되어 Caesar의 정신으로 부활된 제국주의라는 정치질서속으로 용해되고 마는 것이다.

IV. 결 론

Shakespeare는 인간이란 우주적 질서라는 고정된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숙명적인 개인 존재이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회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변모,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사극에서 제시하고 있다. *Julius Caesar*에서는 Caesar라는 인물의 개인 존재와 공인으로서의 절대 통치자라는 이중적 갈등구조를 통하여 인간의 새로운 존재양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극에서 Shakespeare는 대로마제국을 건설하려는 Caesar의 권력에 대한 의지와 과거 공화주의적 이상에 집착하고 있는 Brutus를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자들의 관념적 규범간의 갈등과 대결을 통하여 이러한 인식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극에서는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장인물들은 각자가 자신의 인식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갈등과 충돌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서로가 상반된 의지와 규범을 갖고 행동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 책임을 물을만한 절대적 존재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액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의 책임과 그에 대한 결과는 군중이라는 사회적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중의 역할은 이 극에서 능동적 주체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Brutus는 Caesar를 살해하고 난 후에 군중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심판을 구하고 있고, Antony는 Caesar의 죽음의 부당함을 군중들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군중들은 직접적인 행동에서도 로마사회의 능동적 힘의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Brutus를 새로운 Caesar로 추대하려 하고,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시인 Cinna를 무참히 살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극의 주요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같이 군중들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존재이며, 군중들은 이들의 존재의 조건인 동시에 목적이 되고 있다. 군중을 외면하거나 군중을 떠나서는 이 극의 인물들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로마사회는 철저하게 개인 존재가 아닌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존재만을 필요로하고 있는 것이다. Brutus의 이상이 좌절된 것도 바로 그의 개인적인 이상적 규범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회적 요구, 즉 군중들의 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사회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Brutus가 군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그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이나 공화제라는 정치체제가 더 이상 로마 시민들의 현실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로마의 현실상황은 Antony의 연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웃나라를 정복하여 전리품을 가져오고, 많은 이웃나라 시민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로마시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 준 Caesar를 살해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설득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적합한 공화주의라는 정치체제 역시 대로마제국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는 로마사회의 정치체제로서는 부적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Casear를 중심으로한 세력과 Brutus를 중심으로한 공화주의자들의 갈등과 대결은 로마의 전통적 문화 속에서 안주하면서 과거의 공화주의 체제라는 이상에 집착하고 있던 보수세력과 대제국으로 확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진보적 세력간의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Julius Caesar는 이러한 갈등구조속에서 로마사회의 정치적 현실상황과 군중들의 사회적 욕구를 정확히 간파하고 대처해 나간 것이다. 그래서 Caesar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존재이면서도 공인으로서의 절대군주의 이미지와 역할만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개인존재로서의 Caesar의 실상은 Cassius가 지적한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함과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화정에서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로마정치 현실상황하에서 그는 이러한 약점을 감추기 위해 강력한 절대군주라는 가면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Calphurnia의 불임의 저주를 제거하도록 Antony에게 지시하면서도 죽음을 예견하는 그녀의 불길한 꿈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또한 자신을 "Caesar"라는 3인칭으로 부르고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복극성"에 비유하면서 강력하고 전지전능한 신격화된 이미지로 격상시킨다. 이와 같이 공인으로서 절대군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Caesar는 "공익"과 "자유민주공화정의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Brutus를 중심으로 한 공화파들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Caesar 살해이후에도 공인으로서의 Caesar의 절대군주의 이미지는 로마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Antony와 Octavius에 의해 계승되고, 또한 "유령"이라는 초자연적 이미지로 나타나 Brutus를 중심으로한 공화파들은 물론 로마의 정치질서인 공화정을 몰락시킴으로써 로마대제국의 길을 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인으로서의 Caesar의 절대권력에의 의지는 Antony와 Octavius에게로 계승되고 발전되어 로마제국의 길로 접어들게하는 필연적인 로마역사의 발전의지라 할 수 있다.

Works Cited

- Barton, Anne. "Rhetoric in Ancient Rome".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Julius Caesar*. Ed. He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8): 79-90.
- Bulman, James. *The Heroic Idiom of Shakespearean Tragedy*. New York: U. of Demore, 1985.
- Charney, Maurice. *Shakespeare's Roman Plays: The Function of Imagery in the Drama*. Cambridge: Harvard UP, 1963.
- Charlton, H.B. *Shakespeare in Tragedy*. Cambridge: Cambridge UP, 1948.
- Dowden, Edward.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London: Routledge, 1967.
- Garber, Majorrie B. *Dream in Shakespeare: from Metaphor to Metamorphoses*. New Heaven: Yale UP, 1984.
- Granville-Barker, H. *More Prefaces to Shakespeare*. Princeton: Princeton UP, 1974.
- Harrison, G.B. *Shakespeare's Tragedies*. London: Routledge, 1951.
- Keeton, George W. *Shakespeare's Legal and Political Background*. London: Sir Issac Pitman & Sons, 1967.
- Knight, G.Wilson. *The Imperial Theme: Further Interpretations of Shakespeare's Tragedies Including the Roman Plays*. London: Methuen, 1979.
- MacCullum, M.W. *Shakespeare's Roman Plays and Their Background*. London: Macmillan, 1967.
- Miola, Robert S. *Shakespeare's Rome*. London: Cambridge UP, 1983.
- Proser, Matthew N. *The Heroic Image in Five Shakespearean Tragedies*. New York: Gordian P. 1978.
- Spencer, T.J.B. *William Shakespeare: The Roman Plays*. London: Longman's Green C, 1963.
- Traversi, Derek. "Julius Caesar: The Roman Tragedy".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Julius Caesar*. Ed. He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8): 5-28.
- Shakespeare, William. *Julius Caesar*. The Arden Shakespeare. Ed. T.S. Dorsch. London: Methuen, 1977.